세종대학교 SEJONG UNIVERSITY
Consumer Insight

기상과 국내여행

▸ '18년 5월 2일(수) 배포
▸ 자료 총 3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메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락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황사 · 미세먼지 심하면 '여행계획 취소할 것', 40% 넘어

- 황사•미세먼지, 이동 · 활동에 직접적 지장 없지만 불안해
- 폭설 · 폭우 · 폭풍 같은 악천후와 큰 차이 없어

폭설, 폭우, 폭풍과 같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커진다. 악천후 다음으로는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폭염과 혹한 같은 이상 기온에 대해서는 덜 민감했다. 남성보다는 여성, 미혼보다는 기혼, 젊은 층보다는 고연령 층이 기상상황에 더 영향을 받았다. 60대 이상 연령층은 기상 문제에 따라 국내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의향이 가장 컸으며, 특히 폭풍에 민감했고 그 다음은 황사와 혹한의 순이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조사)에서 기상 상황이 국내여행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 악천후, 대기오염, 이상 기온과 관련된 기상상황 7가지를 제시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된 국내 여행지에 지난 1년 중 가장 심한 기상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 그 결과 여행을 '취소/변경하게 될 것'이라는 답은 폭설, 폭풍, 폭우와 같은 악천후일 때 각각 54%, 53%, 52%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1]. 그 다음은 대기오염의 지표인 황사(47%)와 미세먼지(42%)였고, 혹한(32%)과 폭염(25%) 같은 극단적인 기온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다.

폭설, 폭풍, 폭우와 같은 악천후일 때 과반수가 여행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악천후는 여행의 기본인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상적 활동을 어렵게 하고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선택이다.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문제는 건강에 유해하기는 하지만 악천후처럼 즉각적인 피해나 위험을 주거나, 혹한이나 폭염과 같이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악천후와 비교해 취소/변경 의향이 크게 낮지 않은 것은 상당수가 황사나 미세먼지

가 미래에 일으킬지 모르는 건강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 기상 상황별 국내여행 취소/변경 의향

유형		국내여행 취소/변경 의향 %	주요 우려 요인
악천후	폭설(눈)	54%	이동 및 야외활동 거의 불가능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폭풍(바람)	53%	
	폭우(비)	52%	
대기오염	황사	47%	이동 및 야외활동에 대한 거부감 있음 건강관련 불안 및 우려 있음
	미세먼지	42%	
기온	추위(혹한)	32%	이동 및 야외활동에 다소 불편함 있음 건강 및 안전과는 대체로 무관함
	더위(폭염)	25%	

Q. 만약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다녀올 계획인데, 여행지에 대한 일기예보에서 '지난 1년 중 가장 심한 OOO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계획하신 국내여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소/변경할 것(1+2), 5점 척도; 취소/변경할 것(1), 아마 취소/변경할 것(2), 잘 모르겠다(3), 아마 계획대로 갈 것(4), 계획대로 갈 것(5))

극히 덥거나 추운 이상기온은 활동에 불편을 주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큰 위험과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상기온은 돌발적이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여러 차례 며칠씩 계속되는 익숙한 상황으로 굳이 여행계획을 취소/변경할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 민감한 것은 건강과 연결된 문제이고, 발생 빈도도 높으며 위해요인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황 발생시 흔히 권장되는 대응행동은 외출하지 말고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국내여행을 하기에 좋은 봄철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변경 및 취소에 부담이 적은 당일여행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관광산업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천명 조사)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